

이웃끼리 서로 협력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배려가 필요한 분에 대해 신경 쓰기

고령자나 장애를 가진 분 등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에는 이동을 도와 드리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피소에서 신경을 써 드리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자신이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각각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인지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서로 서포트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시의 대피와 그 방법 등에 관해서는 평상시부터 근처 이웃과 서로 확인해 둡시다.

배려가 필요한 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준비

- ◆ 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를 평상시부터 생각해 둡시다.
- ◆ “비상시 소지품” (19페이지 참조)으로 필요한 약 및 생활용품과 함께 대피 행동 시에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피난 지원 계획”을 준비해 둡시다.
- ◆ 근처 이웃분들과 평상시부터 의사소통을 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아 둡시다.
- ◆ 화재가 닥치는 등의 긴급 시에는 큰 목소리나 소리를 내서 주위에 알립니다.

안부 확인에는 직접 제작한 지도가 효과적

헤이세이 19년 노토 반도 지진,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몬젠마치 진도 6강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붕괴한 건물이 44채, 절반이 붕괴한 건물이 96채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주민이 평상시에 만들어 둔 1인 가구와 병약한 고령자 주택을 색깔로 분류한 지도를 활용해, 지진 발생 4시간 후에는 거의 모든 분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 지도 작성 시의 포인트

- 지도에 게재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습니다.
- 10 ~ 20세대 정도의 작은 범위의 지도로 만듭니다.
- 지도는 실제로 직접 도움을 지원하는 사람이 보관합니다.

대피 행동 시에 지원이 필요한 분에 대한 대피 지원

대피 행동 시에 지원이 필요한 분(배려가 필요한 분 중에서, 스스로 대피하는 것이 곤란한 분으로, 원활하면서도 신속한 대피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특히 지원이 필요한 분)의 대피 지원은 소재지와 상황을 평상시부터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악할 경우에는 그 목적과 취급에 관해 본인의 양해를 얻도록 합니다.

피난 지원 계획을 만들자

누가 어떻게 대피를 도울지, 대피 행동 시에 지원이 필요한 분들 개개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내용을 정리해 서로 가지고 있도록 합니다. 지원자는 여러 명 정해 두면 좋습니다. (30페이지 참조)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지원

지원이 필요한 1인 가구 거주자 등은 지진에 대비하여 가구 등을 고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 여러분이 협조해 드리도록 합니다.

